

## 기혼여성의 결혼가치관과 부부친밀감의 종단적 변화유형 분류 및 영향요인 검증 : 이중 변화형태 모형의 적용\*

남예지\*\*·장유나\*\*\*·홍세희\*\*\*\*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여성의 결혼가치관과 그들이 인식하는 부부친밀감의 변화양상에 따라 잠재계층성장모형을 동시에 추정하여, 잠재계층을 분류하고 관련 영향요인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패널 1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의 종단자료를 사용했다. 분석 결과, 결혼가치관의 잠재계층은 변화유형에 따라 '보수적 가치관 고착형', '중도-개방 변화형', '개방적 가치관 유지형'의 3개 집단으로, 부부친밀감은 '저수준 유지 집단', '보편-유지 집단', '고수준 하향 집단'으로 3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결혼가치관의 계층분류에는 연령, 직장유무, 최종학력, 가사분담 만족도, 결혼 연차, 결혼생활 행복감이, 부부친밀감에는 연령, 최종학력, 자녀유무, 가사분담 만족도, 결혼 연차, 결혼생활 행복감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결혼가치관과 부부친밀감을 종단적으로 연결하여 현재 한국에서 나타나는 가정학적·인구사회학적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잠재계층성장모형을 확장시켜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을 파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 변수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고 관련한 영향요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방법론적으로도 의의가 있다.

주제어 : 기혼여성, 결혼가치관, 부부친밀감, 잠재계층성장모형, 이중 변화형태 모형

\* 본 논문은 제16회 통계청 대학원생 논문공모전의 수상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제1 저자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nyeji1018@naver.com)

\*\*\* 제2 저자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pollux\_15@daum.net)

\*\*\*\* 교신저자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seheehong@korea.ac.kr)

## I. 서론

최근 한국에서는 저출생 현상을 비롯하여 결혼연령의 상승, 이혼의 증가 등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통계청(2018a)의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은 초저출생 국가로 분류된 국가로, OECD 회원국과의 합계 출산율 격차도 벌어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머니투데이, 2018). 이에 따라 한국은 고령화와 맞물려 생산가능 인구의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인구절벽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Dent, 2014). 한국의 인구절벽 문제는 국민의 평균 기대 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층 증가에도 기인하지만, 기대 수명의 연장은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자연적인 결과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보다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원인은 급격한 출산율 하락으로 주목받고 있다. 저출생 현상은 국가 생산력을 감소시키고 종단에는 한 국가 내의 자연적 인구 대체 확률을 낮춰 미래사회 전반에 막대한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이삼식, 2006) 심각한 사회 문제다.

출산을 저하에 기여하는 요인은 다양하게 조사되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도시화 진행으로 인한 가족 구조의 변화,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 및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증가, 초혼연령의 상승, 이혼가정의 증가, 자녀의 양육비 부담 증가 등이 저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김태현, 2005). 특히 사회 경제적 구조의 변화로 결혼 시기가 늦춰지고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저출생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문선희, 2012). 실제로 미혼여성 혹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치관 변화가 결혼의향 및 출산의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혔다(예: 김지유·조희선, 2014; 문선희, 2012; 이연숙·김하늬·이정우, 2016; 진미정·정혜은, 2010). 이들은 미혼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가 결혼율과 출산율 감소로 연결된다는 것에 주목한 연구들로, 현재 한국의 미혼 청년층에게 결혼과 가족의 의미가 어떠한지 나타내었다.

하지만 가치관의 변화는 미혼남녀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라 보기 어렵다. 혼인신고를 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초혼 신혼부부 110만 3천 쌍 중 현재 자녀가 없다고 보고한 경우가 41만 4천 쌍으로, 전체의 약 37.5%가 무자녀 부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통계청, 2018b). 다자녀 기준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낮아진 것도 한 가구에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 무자녀시대가 도래한 것의 반증이라는 주장(이데일리, 2018)이 나오는 만큼, 기혼남녀의 가치관 변

화 또한 저출생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의 가치관 변화가 빠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김승권, 2014), 가치관 변화의 주된 원인으로 여성의 직업 활동 증가 및 경제력 향상이 꼽히는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하듯 기혼여성 사이에서 결혼관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결혼가치관이 실제로 변화하고 있는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에 대한 종단연구는 부족하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문제를 다룬 연구는 다수 이어지고 있으나(예: 김종훈, 2018; 이미옥·명성준, 2015; 이삼식, 2015; 이충환·신준섭, 2013), 개인의 결혼가치관에 대한 연구(예: 김태현, 2005; 이삼식, 2006; 호정화, 2014)는 대부분 횡단자료를 바탕으로 한 단편적 연구에 그치고 있다. 결혼관의 변화를 다룬 연구가 일부 존재하기는 했지만, 연령에 따라 변수의 평균을 구하여 그 수치를 단순히 비교(은기수·이윤석, 2005)하거나 결혼가치관을 가족가치관과 묶어 분석하는(이연숙·김하늬·이정우, 2016) 것에 그쳐, 결혼가치관의 변화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데에 한계가 있다.

한편, 부부관계가 어떠한 사회적 규범에 따라 아이를 가졌던 전통적 가치관이 약해지고 출산이 부부가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되면서(Cherlin, 2004), 부부간의 심리적 관계가 자녀를 가지는 데에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김은경, 2014). 즉,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루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던 과거 기성세대와 비교해, 부부 자신들의 삶을 즐기는 것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점차 강해져 자녀출산의 문제 또한 부부생활이 어떠한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다. 이는 부부의 정서적·심리적 관계가 가까울 때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강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부부친밀감은 부부의 상호 공유적인 인지적, 정서적, 성적인 밀접함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이경희, 1998), 부부간의 심리적 관계가 어떠한지 파악하는 데 핵심적이다.

이처럼 부부친밀감이 결혼가치관과 함께 더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결혼가치관과 부부친밀감이 어떠한 영향 관계에 있는지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이에 더하여 인간관계는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속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결혼가치관과 마찬가지로 부부친밀감 또한 변화할 수 있는 특성임에도, 친밀감의 변화를 살펴본 사례는 부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기 위한 연구(권정혜·채규만, 2000) 이외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부부의 개인적인 특성(예: 우울, 자기효능감, 심리적 위기감 등)에 따라 부부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밝힌 것(예: 김명희·최연실, 2007; 김미옥·김경숙, 2016; 김수진·김세영, 2013; 윤미혜·신희천, 2009; 이경희·옥선화, 1998)으로, 횡단적 접근에 그쳤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가치관 변화가 빠르다(김승권, 2014)는 것을 바탕으로, 기혼여성의 결혼가치관과 이들이 인식한 부부친밀감이 변하는지, 변화한다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변화 양상이 서로 다른 유형으로 분류되는지 각각 종단적인 관점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기혼여성의 결혼가치관이 보수적 혹은 개방적으로 변한 경우에 부부친밀감이 높아지는지, 혹은 낮아지는지 그 관계성에 대해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저출생 원인 요소로서의 결혼가치관과 부부친밀도 변화에 대해 심층적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고, 보다 실효성이 있는 출산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결혼가치관

가치는 지적, 정신적 구성 개념으로, 어떠한 상황에 대해 사람마다 보이는 태도, 행동, 선택 등의 기초가 된다(최연실, 1995). 따라서 가치관은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일종의 심리적인 요인으로서, 개인의 태도 결정에 기준이 되는 신념을 뜻한다(김태길, 1995). 다시 말해, 가치관에 따라 각 개인은 상황에 대해 저마다 의사결정을 하며,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형성한다. 따라서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에 관한 문제는 개인이 살아가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한다(이삼식, 2006).

결혼관은 개인이 가진 가치관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결혼에 관한 개인의 신념을 나타낸다(김경화·이선미, 1998). 결혼가치관에 따라 각 개인은 배우자 선택, 결혼, 이혼, 재혼 등에 관련된 가치와 견해를 형성(호정화, 2014)하게 되며, 결혼 또한 사회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결혼가치관은 한 사회 내의 여러 활동을 영위해나가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반대로 결혼이 다른 사회 구성요소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개인이 속한 사회가 어떠한지에 따라 결혼가치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내포한다(김지유·조희선, 2014). 즉, 결혼가치관은 한 사회 내에서 결혼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지표이며, 특히 동일한 연령대에서는 생애주기가 유사할 가능성이 높아 그 세대만이 가지는 특징이 결혼가치관에 반영될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유교사상을 따르고 있어 성역할에 대한 보수적인

고정관념이 지배적이었고, 따라서 여성이 아내 혹은 딸로서 남성의 보조자 역할을 이행해야 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다(김지유·조희선, 2014). 근래에는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 진출이 증가하여, 결혼을 꼭 필수로 해야 하는 사회적 규범보다는 개인의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남춘호·남궁명희, 2012). 하지만 전통문화를 따르려는 이가 여전히 남아있어, 현재 한국에는 전통적 가치관, 중도적 가치관, 개방적 가치관이 모두 혼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은기수·이윤석(2005)은 주로 중노년층이 전통적인 결혼관을, 청년층이 개방적인 결혼관을 가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 이연숙·김하늬·이정우(2016)는 가족가치관을 고려해 결혼관을 크게 가족중시형, 개인중시형, 자녀·가족중시 복합형으로 분류하여, 청년층 내에서도 여러 가치관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처럼 개방적인 결혼가치관을 가진 청년층이 결혼·출산 세대가 되어 나타나는 변화는 다양한 사회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이 중 두드러지는 것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비혼 가구 수 증가 현상과 결혼은 했지만 자녀를 갖지 않거나 아이를 가지더라도 한 명만 낳는 저출생 현상이다(서울경제, 2018). 이를 가치관으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할 수는 없으나,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과거보다 결혼관이 개방적으로 전이되는 현상이 인구 구조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사안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진미정·정혜은(2010)은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니고 가족부양에 동조할수록 결혼의향이 더 높다고 보고했다.

이러하듯 결혼관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혼가치관이 실제로 변화하고 있는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에 대해 종단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드물다. 사회 차원에서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에 관한 연구는 다수 이어지고 있으나(예: 김종훈, 2018; 이미옥·명성준, 2015; 이삼식, 2015; 이충환·신준섭, 2013), 개인의 결혼가치관에 대한 연구(김태현, 2005; 이삼식, 2006; 호정화, 2014)는 대부분 횡단자료에 의거하여 단편적인 수준으로 결혼가치관의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결혼가치관의 변화를 다룬 연구가 일부 존재하기는 했으나, 연령별로 결혼가치관을 단순히 비교(은기수·이윤석, 2005)하는 것에 그쳐, 결혼가치관의 변화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데에 제약이 있다. 이연숙·김하늬·이정우(2016)의 연구에서 동일 세대라도 성장 환경에 따라 가치관이 다른 양상으로 변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 결혼가치관을 자녀관, 가족주의관 등 다른 가치관들과 묶어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이들의 연구 또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보다 세밀하고 정확하게 결혼가치관이 변하는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혼가치

관만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가치관의 변화를 면밀히 살피기 위하여 종단연구방법을 바탕으로 현상에 접근하고자 한다. 결혼가치관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고 그 변화는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지 검증하여, 현재 국내 기혼여성의 결혼관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 2. 부부친밀감

부부친밀감은 부부의 정서적, 성적인 밀접함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이경희, 1998), 의사소통과 가치관의 일치성, 신뢰 및 성적 만족과 같은 인지적 요인을 포함하여 관계를 긴밀하게 공유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부부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남녀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맺어진 공동체로(허윤정, 1997), 공간, 시간, 정서 등을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정도 혹은 친밀한 정도가 결혼만족도(하오령·권정혜, 2006)를 비롯하여 자녀출산 의향(김은경, 2014)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부부 간의 친밀도가 자녀를 가지는 데에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김은경, 2014), 부부친밀도 또한 출산문제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변수로 관심받고 있다. 이경희·옥선화(1998)의 연구에서는 부부관계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화된 집단 간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부부관계의 유형을 친밀형, 갈등형, 포기형, 친밀감 추구형으로 분류하였으며, 부정적 갈등해결방식, 긍정적 자아개념 및 긍정적 상호작용,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다른 부부관계 양상을 발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부부관계 또한 인간관계 중 하나며, 인간관계는 시간에 흐르면서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부부친밀감 또한 변화할 수 있는 특성임에도, 부부친밀감의 변화 형태가 어떠한지, 특히 부부친밀감의 변화가 어떤 요인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밝혀진 바가 적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부부친밀감의 횡단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대다수로, 개인적인 특성(예: 우울, 자기효능감, 심리적 위기감 등)에 따라 부부친밀감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예: 김명희·최연실, 2007; 김미옥·김경숙, 2016; 김수진·김세영, 2013; 윤미혜·신희천, 2009; 이경희·옥선화, 1998)에 그치고 있어 부부친밀감의 유형을 명확히 분류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간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결혼가치관과 부부친밀감이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지

만, 실제로 결혼가치관과 부부친밀감이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지 함께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시간에 따른 부부친밀감 변화 양상을 종단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부부친밀감의 변화유형을 면밀히 분류하고자 한다. 또한, 부부친밀감이 결혼가치관과 어떠한 영향 관계에 있는지 파악하여 두 변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 3. 결혼가치관 및 부부친밀감의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결혼가치관과 부부친밀감의 변화 양상과 그 유형을 추정하고 서로의 관계를 보는 가운데, 두 변수에 대한 영향요인들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영향요인은 개인 요인과 가정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개인 요인은 최종학력과 직장유무, 연령이다. 학력과 직장유무는 결혼으로 인한 기회비용과 관련이 있다. 여성의 고학력과 사회진출증가로 인해 초혼 연령이 증가하고 비혼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영향요인으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변수이다(호정화, 2014). 여성의 연령 또한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김수진·김세영, 2013)된 바 있어, 본 연구에서는 결혼가치관과 부부친밀감에 대한 최종학력, 직장유무, 연령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정 요인으로는 자녀유무, 가사분담 만족도, 가구소득, 결혼 연차를 고려하고자 한다. 자녀의 탄생은 부부에게 있어 하나의 큰 사건으로 결혼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며(Ryder, 1973), 따라서 자녀유무는 결혼만족도를 비롯하여 양육스트레스(안정신·문혜련, 2017)까지 다양한 요소와 함께 작용하는 요인이다. 가사분담 만족도의 경우,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승권(2014) 연구에서 남성에게 주어지는 가사분담이 현재보다 늘어야 한다는 의견이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가사를 동등하게 분담하는 부부일 때 개방적인 결혼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가구 소득은 결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어(최효식, 2017), 본 연구의 영향요인으로 포함하였다. 한편, 결혼가치관과 부부친밀감 모두 시간에 따라 가변하는 특성을 가졌음을 고려했을 때, 결혼가치관과 부부친밀감이 시간과 관련이 깊은 변수인 결혼 연차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결혼 연차 또한 영향요인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결혼가치관이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 및 행

복감과 유의미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어(신승배·이정환, 2015), 결혼생활 행복감도 함께 고려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변수 관계와 분석 모형을 설정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기혼여성의 결혼가치관과 부부친밀감은 변화형태에 따라 집단이 어떻게 구분되며, 각 집단의 비율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기혼여성의 결혼가치관과 부부친밀감의 조건부확률과 결합확률을 통해 보았을 때, 어떤 영향 관계가 존재하는가? 결혼가치관이 개방적이면 부부친밀감이 낮은가? 혹은 높은가?
- 연구문제 3. 기혼여성의 결혼가치관과 부부친밀감 변화에 따른 집단분류에 있어 어떤 영향요인들이 유의한가?

### Ⅲ. 연구 방법

#### 1. 자료 및 표본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집한 여성가족패널(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KLoWF)의 제1차(2007년)부터 제6차(2016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자료는 9,068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여성 9,997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경제활동 및 가족생활에 대한 양상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자료를 이용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기혼여성의 결혼가치관과 부부친밀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변인들을 포함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 둘째, 종단자료로 설계되어 주요변수에 대한 변화를 파악하기 용이하다. 셋째, 전국 단위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자료로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용이하다.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결혼가치관과 그들이 인식하는 부부친밀감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1차부터 6차까지의 자료를 모두 분석에 사용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은 2007년(제1차)부터 2016년(제6차)까지 지속적으로 기혼 상태였던 여성 중, 관련 문항에 모두 응답한 4,229명이다.



## 2. 측정 도구

### 1) 결혼가치관 및 부부친밀감

본 연구의 주요변수 중 기혼여성의 결혼가치관은 가족 관련 가치관 문항에서 결혼가치관 5문항을 사용하였다. 부부친밀감의 경우, 남편에 대한 인식을 묻는 4문항을 이용하였다. 두 변수 1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 문항들의 평균으로 각 시점마다 동일하게 측정되었다. 문항은 모두 ‘매우 그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4점 척도다. 결혼가치관 문항은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를 제외하면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가치관이 개방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해당 문항(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만 역처리하였다. 부부친밀감은 모두 역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의 친밀감에 대한 인식이 좋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구체적인 문항 내용은 <표 1>에 제시하였으며, 모든 시점에서 각 문항의 신뢰도 Cronbach  $\alpha$ 값은 .608~.837로 나타났다.

### 2) 주요 변수에 대한 영향요인

본 연구는 영향요인이 결혼가치관 및 부부친밀감의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기 위해 1차년도 응답으로 영향요인을 측정하였다. 이때 결혼가치관과 부부친밀감의 영향요인은 크게 개인 요인과 가정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표 1> 주요 변수에 대한 문항내용 및 신뢰도

변수	문항내용	시점(차수)	신뢰도
결혼 가치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결혼은 집안배경이 비슷한 사람과 해야 한다 결혼은 일찍 하는 것이 좋다 결혼하면 자녀를 일찍 갖는 것이 좋다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	1차년도	.608
		2차년도	.617
		3차년도	.617
		4차년도	.625
		5차년도	.679
		6차년도	.697
부부 친밀감	나는 남편과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한다 (*) 나는 남편과 서로 견해가 비슷하다 (*) 나는 남편과 부부생활(성관계)에 만족한다 (*) 나는 남편을 신뢰한다 (*)	1차년도	.837
		2차년도	.801
		3차년도	.784
		4차년도	.766
		5차년도	.766
		6차년도	.7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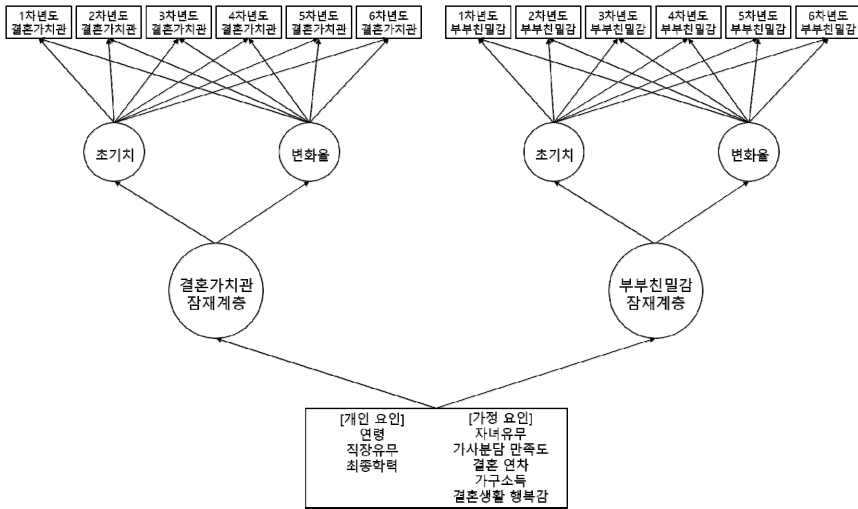
주) 역처리한 문항은 (\*)로 표시.

개인 요인으로는 연령, 직장유무, 최종 학력이 사용되었다. 직장유무는 ‘일자리 없음’(0점), ‘일자리 있음’(1점)로 측정되었다. 최종 학력의 경우, 실제 설문에서는 ‘무학’(1점)부터 ‘대학원 박사’(9점)까지의 9점척도로 조사되었으나,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 서열변수(0=무학, 6=초등학교 졸업, 9=중학교 졸업, 12=고등학교 졸업, 14=전문대학 졸업, 16=4년제 대학 졸업, 18=석사 졸업, 22=박사 졸업)로 변환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고학력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가정 요인으로는 자녀유무, 가사분담 만족도, 가구소득, 결혼 연차, 결혼생활 행복감을 이용하였다. 자녀유무는 0점을 ‘자녀 없음’, 1점을 ‘자녀 있음’으로 코딩하였다. 가사분담 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1점)부터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5점)로 측정되었으며 역처리를 통해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가구소득은 만원 단위로 측정되었으며, 천만 원 단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결혼 연차는 1차년도(2007년)에서 결혼한 시점을 뺀 값으로 측정하였다. 결혼생활 행복감은 ‘매우 불행하다’(1점)부터 ‘매우 행복하다’(7점)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생활이 행복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결혼가치관 및 부부친밀감을 변화양상에 따라 여러 개의 잠재계층으로 유형화하고 도출된 잠재계층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이중변화형태분석(Dual Trajectory Modeling Analysis)을 적용하였다. 이중변화형태분석은 Nagin(1999)의 준모수적 집단중심 접근법으로 알려진 잠재계층성장모형(Latent Class Growth Model; LCGM)을 확장한 혼합모형으로, 집단기반 성장궤도를 통해 자료를 쉬우면서도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다(Jones & Nagin, 2007).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시각적 편의를 위해 측정변수의 오차항을 생략하고 영향요인을 하나의 사각형으로 나타냈다. 절편(초기치)부터 변화율의 2차함수까지는 모두 잠재변수이므로 원으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그림 1]은 기혼여성의 결혼가치관과 기혼여성이 인식한 부부친밀감의 변화양상에 따른 잠재계층이 어떠한지 파악함과 동시에 그에 관한 개인 및 가정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이증변화형태분석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로 각 종속변수들에 대한 잠재계층의 수와 변화함수를 결정한다. [그림 1]에서도 제시되어 있듯이, 변수별 잠재계층은 해당 종속변수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기반하여 도출된다. 이때 잠재계층 내에서 가장 고차원의 함수부터 유의성을 검정하여 유의하지 않은 경우 낮은 차원의 함수로 변경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든 잠재계층의 최고차항이 유의할 때까지 전체 모형을 탐색적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어떤 잠재계층은 선형함수로 구성되고 어떤 잠재계층은 곡선으로 표현되거나 변화가 없는 등, 각 계층별로 함수형태가 다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결혼가치관과 부부친밀감의 측정 도구는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절단형 정규모형(censored normal model)에 기반을 두므로 시간에 따른 잠재계층 J의 다차함수 모형 중 2차함수 모형은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Jones & Nagin, 2007).

$$Y_{it}^J = \beta_0^J + \beta_1^J Year_{it} + \beta_2^J Year_{it}^2 + \epsilon_{it} \quad (1)$$

위의 식에서  $Y_{it}^J$ 은 잠재계층  $J$ 에 속한  $i$ 번째 개인이 시점  $t$ 에서 해당 문항, 즉 변수에 응답한 값이다.  $Year$ 은 시간에 대한 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2007년)부터 6차년도(2016년)까지 6개 시점이 이에 해당한다.  $\beta^J$ 은 잠재계층  $J$ 에 대한 각 항에 대한 계수 값으로,  $\beta_0$ 은 절편계수,  $\beta_1$ 은 1차함수항계수,  $\beta_2$ 은 2차함수항계수를 의미한다. 이때  $\beta^J$ 들에 대한 계수 유의성검증을 통해 몇 차 함수항이 유의한지 확인하여 각각의 잠재계층의 변화함수를 결정한다.

잠재계층성장모형의 변화함수를 선택함과 동시에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아래의 식과 같이 상대적합도 지수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Akaike, 1974)와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Schwartz, 1978)을 활용한다. 아래의 식에서  $\ln(L)$ 은 로그 우도값,  $p$ 은 추정모수의 수,  $N$ 은 표본크기를 뜻한다. 두 적합도 지수 모두 음수형태로 나타나며, 값이 클수록 모형의 설명력이 좋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분석 모형이 자료에 적합할수록 0에 가까워진다. 또한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이 1% 미만이면 계층이 잘 분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집단비율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Jung & Wickrama, 2008), 최종적으로 잠재계층 수를 정한다.

$$AIC = \ln(L) - (0.5)p \quad (2)$$

$$BIC = \ln(L) - (0.5)p \ln(N) \quad (3)$$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앞에서 결정된 두 변수의 변화 양상에 대한 잠재계층성장모형들을 동시에 분석하여, 잠재계층별 특징과 응답자가 각각의 잠재계층에 속할 확률을 함께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얻어지는 결과를 통해 두 가지 잠재계층성장모형의 상호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 잠재모형의 다른 나머지 잠재모형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확률과 두 잠재모형을 결합한 결합확률이 도출된다. 본 연구의 경우는 결혼가치관의 변화 양상에 따른 잠재모형과 부부친밀감에 따른 잠재모형의 상호간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각각 변수  $Y_1$ 의 잠재계층  $J$ 에 속할 때 변수  $Y_2$ 의 잠재계층  $K$ 에 속할 조건부확률( $\pi_{klj}$ )은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Jones & Nagin, 2007). 이때  $\pi_{klj}$ 는 0과 1 사이 값을 가지며, 이는 모수  $\gamma_{klj}^0$ 을 추정하여 얻어진다(Nagin & Tremblay, 2001).

$$\pi_{k|j} = e^{\gamma_{kj}^0} / \sum_k e^{\gamma_{kj}^0} \quad j = 1, \dots, J, \quad k = 1, \dots, K \quad (4)$$

마지막 단계에서는 두 잠재계층성장모형에 영향을 주는 개인 요인과 가정 요인을 전체 모형에 투입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영향요인은 [그림 1]과 같이 시간 독립적 변수로 설정하여, 각각의 잠재계층성장모형이 유형화됨에 있어 초기치와 변화율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AS 9.4의 PROC TRAJ를 이용하였다. 이 통계 패키지에서는 관측치에 결측이 존재하는 경우, 결측을 제거하는 것이 권장된다(Andruff et al.,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 전 결측에 대해 listwise 방법을 사용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결혼가치관 및 부부친밀감 변화양상에 따른 잠재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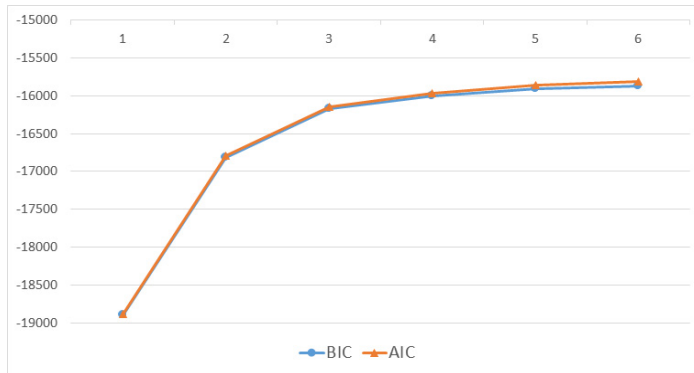
기혼여성의 결혼가치관과 부부친밀감의 변화 형태에 따라 잠재계층을 분류하기 위해, 잠재계층의 수별로 두 잠재계층성장모형의 적합한 변화 함수가 무엇인지 각각 살펴보았다.

〈표 2〉 변수별 잠재계층 수에 따른 변화함수 조합 및 적합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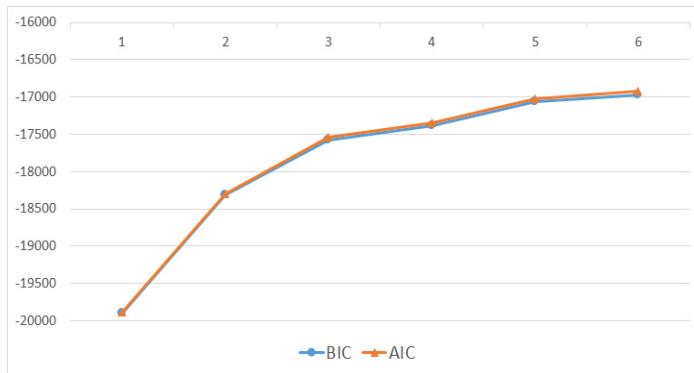
변수	잠재계층 수	변화함수 조합	BIC	AIC	Log likelihood
결혼 가치관	1	(2)	-18894.47	-18881.77	-18877.77
	2	(2,2)	-16811.75	-16786.35	-16778.35
	3	(2,2,2)	-16178.97	-16149.88	-16128.88
		(1,2,2)	-16174.85	-16139.93	-16128.93
	4	(2,2,2,2)	-16013.53	-15962.73	-15946.73
		(1,2,2,2)	-16010.08	-15962.46	-15947.46
		(1,1,2,2)	-16006.80	-15962.36	-15948.36
	5	(2,2,2,2,2)	-15918.47	-15854.98	-15834.98
		(1,2,2,2,2)	-15915.39	-15855.07	-15836.07
		(1,1,2,2,2)	-15974.80	-15917.65	-15899.65
		(1,1,2,1,2)	-15908.38	-15854.40	-15837.40

## 18 여성연구

변수	잠재계층 수	변화함수 조합	BIC	AIC	Log likelihood
	6	(2,2,2,2,2,2)	-15887.36	-15811.16	-15787.16
		(1,2,2,2,2,2)	-15884.22	-15811.20	-15788.20
		(1,1,2,2,2,2)	-15880.08	-15810.23	-15788.23
		(1,1,2,1,2,2)	-15876.97	-15810.29	-15789.29
		(1,1,2,1,2,1)	-15872.79	-15809.30	-15789.30
		<b>(1,1,2,2,2,0)</b>	<b>-15868.63</b>	<b>-15808.31</b>	<b>-15789.31</b>
부부 친밀감	1	<b>(2)</b>	<b>-19902.51</b>	<b>-19889.81</b>	<b>-19885.81</b>
	2	(2,2)	-18322.95	-18297.55	-18289.55
		(1,2)	-18319.08	-18296.85	-18289.85
		<b>(0,2)</b>	<b>-18315.18</b>	<b>-18296.13</b>	<b>-18290.13</b>
	3	(2,2,2)	-17583.27	-17545.17	-17533.17
		(1,2,2)	-17579.69	-17544.77	-17533.77
		<b>(0,2,2)</b>	<b>-17575.64</b>	<b>-17543.89</b>	<b>-17533.89</b>
	4	(2,2,2,2)	-17396.16	-17345.36	-17329.36
		(1,2,2,2)	-17392.34	-17344.71	-17329.71
		(1,1,2,2)	-17392.48	-17348.04	-17334.04
		(1,1,1,2)	-17389.31	-17348.04	-17335.04
		(0,1,1,2)	-17385.17	-17347.07	-17335.07
		<b>(0,0,1,2)</b>	<b>-17381.01</b>	<b>-17346.08</b>	<b>-17335.08</b>
	5	(2,2,2,2,2)	-17090.07	-17026.57	-17006.57
		(1,2,2,2,2)	-17085.98	-17025.65	-17006.65
		(1,1,2,2,2)	-17279.58	-17222.43	-17204.43
		(1,1,1,2,2)	-17093.21	-17039.24	-17022.24
		(0,1,2,2,2)	-17078.72	-17024.74	-17007.74
		(0,1,1,2,2)	-17276.31	-17225.51	-17209.51
		(0,1,0,2,2)	-17070.90	-17023.27	-17008.27
		<b>(0,0,0,2,2)</b>	<b>-17066.97</b>	<b>-17022.53</b>	<b>-17008.53</b>
	6	(2,2,2,2,2,2)	-16952.55	-16876.35	-16852.35
		(1,2,2,2,2,2)	-16949.20	-16876.17	-16863.17
		(1,2,2,1,2,2)	-16945.46	-16875.61	-16853.61
		(0,2,2,1,2,2)	-17254.16	-17187.48	-17166.48
		(0,2,2,1,1,2)	-16969.07	-16895.57	-16875.57
		(0,2,1,1,1,2)	-16955.21	-16894.89	-16875.89
		(0,2,1,0,1,2)	-16980.73	-16923.58	-16905.58
		(0,2,1,0,0,2)	-16976.82	-16922.84	-16905.84
		<b>(0,1,1,0,0,2)</b>	<b>-16974.46</b>	<b>-16923.66</b>	<b>-16907.66</b>



[그림 2] 결혼가치관 잠재계층 수 증가에 따른 적합도 지수 변화



[그림 3] 부부친밀감 잠재계층 수 증가에 따른 적합도 지수 변화

먼저 각 변수에서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고, 변화함수를 탐색적으로 파악하였다. 가장 유의한 변화함수의 조합은 각 잠재계층의 최고차항 계수의 유의성에 근거하였다. 계층별 최고차항의 계수가  $\alpha = .05$  수준에서 유의해질 때까지 해당 잠재계층의 함수의 차수를 감소시켜나갔다. 두 잠재모형의 잠재계층 수별 변화함수 조합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시각적 편의를 위해 잠재계층 수별로 가장 유의했던 변화함수 조합은 굵게 표시하였다. 3차함수로 적합시킨 경우에 모든 계층의 최고차항 계수가 유의하지 않거나, 다수의 계층이 0차로 적합되어 변화 양상을 보기에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부터 변화함수를 탐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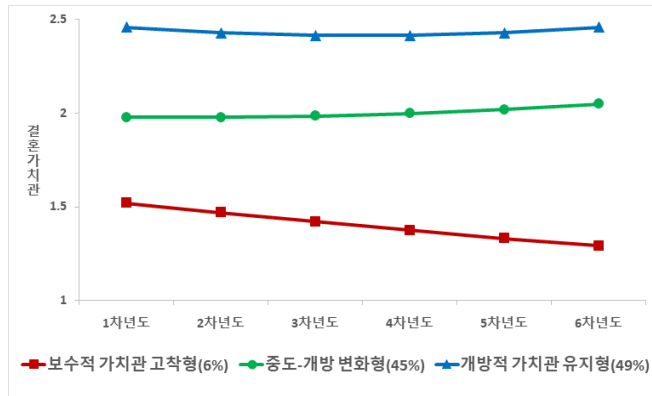
〈표 3〉 잠재계층의 변화함수 및 비율

잠재계층		함수	계수	표준오차	비율(%)
결혼가치관	보수적 가치관 고착형	절편	1.569***	0.031	6.0***
		1차	-0.055***	0.008	
	중도-개방 변화형	절편	2.022***	0.021	45.0***
		1차	-0.025*	0.012	
		2차	-0.005***	0.001	
	개방적 가치관 유지형	절편	2.504***	0.019	49.0***
		1차	-0.041***	0.011	
		2차	0.005***	0.001	
부부친밀감	저수준 유지 집단	절편	2.295***	0.015	11.2***
	보편-유지 집단	절편	2.951***	0.017	72.0***
		1차	-0.031***	0.010	
		2차	0.003***	0.001	
	고수준 하향 집단	절편	3.749***	0.042	16.8***
		1차	-0.174***	0.024	
		2차	0.016***	0.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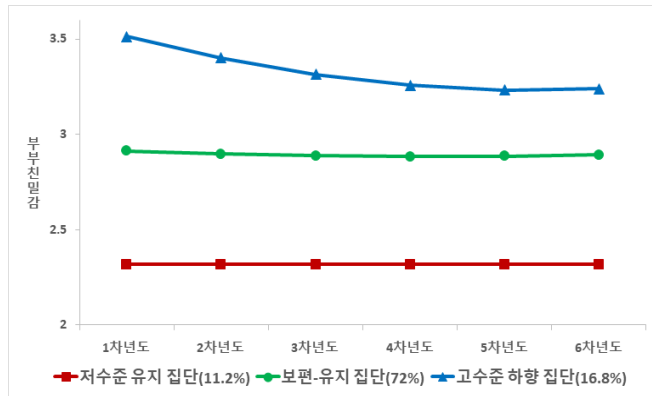
\*p&lt;0.05, \*\*p&lt;0.01, \*\*\* p&lt;0.001

다음으로 가장 적절한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결혼가치관과 부부친밀감에 대해 잠재계층의 수를 증가시키면서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이때 각 잠재계층 수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표 2〉에서 잠재계층 수별로 가장 유의하게 나온 변화함수 조합의 결과다. [그림 2], [그림 3]과 같이, 계층 수를 증가시킬수록 결혼가치관과 부부친밀감에 대한 BIC와 AIC는 모두 증가했으며, 계층 수 4개부터는 증가 폭이 급격하게 낮아졌다. 더불어 각 집단의 비율이 최소 1% 이상을 충족하는지 여부(Jung & Wickrama, 2008)와 해석가능성을 고려(Nagin, 2005)하여, 결혼가치관과 부부친밀감 모두 3개의 잠재계층으로 결정하였다. 결혼가치관과 부부친밀감의 변화 양상에 따른 잠재계층의 수가 각각 3개인 모형을 동시에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으며, 모든 집단에서 변화함수계수가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 결혼가치관 변화양상에 따른 잠재계층



[그림 5] 부부친밀감 변화양상에 따른 잠재계층

결혼가치관의 변화 양상은 [그림 4]에 제시하였다. 첫 번째 집단은 보수적인 결혼가치관이 더 보수적으로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여 ‘보수적 가치관 고착형’이라 명명하였으며, 비율은 약 6%로 나머지 집단에 비해 낮았다. 두 번째 집단은 중도적인 결혼가치관을 보였으나 점차 개방적인 가치관으로 변화하는 형태를 보여 ‘중도-개방 변화형’이라 명명하였으며, 집단비율은 45%로 나타났다. 세 번째 집단은 가장 개방적인 가치관을 가지며, 가치관 변화가 미미하여 ‘개방적 가치관 유지형’이라 지칭하였다. ‘개방적 가치관 유지형’의 비율은 전체의 49%로, 잠재집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이연숙·김하늬·이정우(2016)의 연구에서 가족중시형, 자녀·가족중시 복합형, 개인중시형으로 분류한 것과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부부친밀감의 변화양상은 [그림 5]와 같다. 첫 번째 집단은 11.2%의 비율로, 남편에 대한 친밀감이 낮게 형성되고 유지되는 경향을 보여 ‘저수준 유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집단은 72%로 전체에서 비율이 가장 컸으며, 친밀감이 보통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보편-유지 집단’으로 정리하였다. 세 번째 집단은 친밀감이 높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 ‘고수준 하향 집단’으로 지칭하였다. 이는 각각 이경희·옥선화(1998)의 연구에서의 갈등형, 친밀감추구형, 포기형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2. 결혼가치관 및 부부친밀감 잠재계층에 속할 확률

기혼여성의 결혼가치관과 그들이 인식하는 부부친밀감의 변화양상에 따른 잠재계층을 동시에 분석한 결과에서 도출되는 조건부확률 및 결합확률은 <표 4>와 같다. 시각적 편의를 위해 조건부확률의 경우, 비교 도표 [그림 6]과 [그림 7]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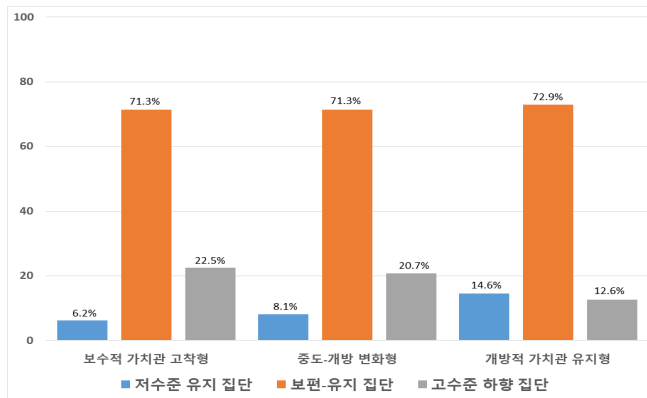
<표 4> 이중변화형태에 따른 잠재계층의 조건부확률 및 결합확률

(가) 결혼가치관을 조건으로 한 부부친밀감 잠재계층 조건부확률(%)		
결혼가치관	부부친밀감	조건부확률
보수적 가치관 고착형	저수준 유지 집단	6.2
	보편-유지 집단	71.3
	고수준 하향 집단	22.5
중도-개방 변화형	저수준 유지 집단	8.1
	보편-유지 집단	71.3
	고수준 하향 집단	20.7
개방적 가치관 유지형	저수준 유지 집단	14.6
	보편-유지 집단	72.9
	고수준 하향 집단	12.6
(나) 부부친밀감을 조건으로 한 결혼가치관 잠재계층 조건부확률(%)		
부부친밀감	결혼가치관	조건부확률
저수준 유지 집단	보수적 가치관 고착형	3.3
	중도-개방 변화형	32.7
	개방적 가치관 유지형	64.0
보편-유지 집단	보수적 가치관 고착형	5.9
	중도-개방 변화형	44.6

		개방적 가치관 유지형	49.5
고수준 하향 집단		보수적 가치관 고착형	8.0
		중도-개방 변화형	55.4
		개방적 가치관 유지형	36.6

(다) 결혼가치관과 부부친밀감 잠재계층 결합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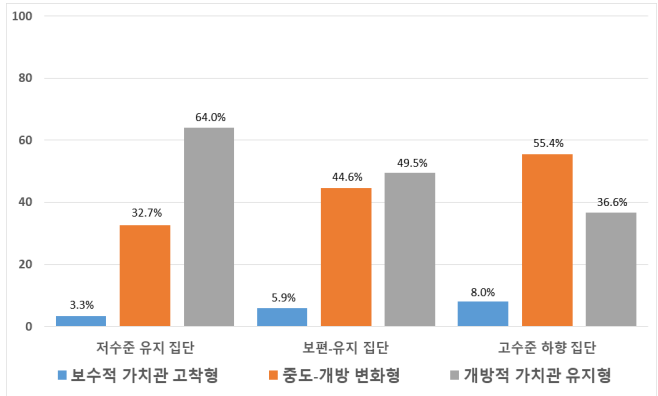
		결혼가치관		
		보수적 가치관 고착형	중도-개방 변화형	개방적 가치관 유지형
부부 친밀감	저수준 유지 집단	0.4	3.6	7.1
	보편-유지 집단	4.3	32.1	35.8
	고수준 하향 집단	1.3	9.3	6.2



[그림 6] 결혼가치관에서의 부부친밀감 잠재계층의 조건부확률 도표

먼저, 결혼가치관을 조건으로 한 부부친밀감 잠재계층의 조건부확률을 살펴 보면, ‘보수적 가치관 고착형’일 경우 부부친밀감 잠재계층에 대해 ‘저수준 유지 집단’은 6.2%, ‘보편-유지 집단’은 71.3%, ‘고수준 하향 집단’은 22.5%의 확률로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개방 변화형’일 경우는 ‘저수준 유지 집단’에 8.1%, ‘보편-유지 집단’에 71.3%, ‘고수준 하향 집단’에 20.7%의 조건부확률을 보였다. ‘개방적 가치관 유지형’에 대해서는 ‘저수준 유지 집단’에 14.6%, ‘보편-유지 집단’에 72.9%, ‘고수준 하향 집단’에 12.6%의 조건부확률이 나타났다. 종합하면, 결혼가치관에 상관없이 부부친밀감 잠재계층 중 ‘보편-유지 집단’에 속할 확률은 약 70% 정도로 높은 반면 ‘저수준 유지 집단’에 속할 확률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았다. 하지만 양극단의 부부친밀감 잠재계층은 결혼가치관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었다. 결혼가치관이 개방적일수록

부부친밀감의 '저수준 유지 집단'에 속할 확률 크기가 증가함과 동시에 '고수준 하향 집단'에 속할 확률 크기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부부친밀감에서의 결혼가치관 잠재계층의 조건부확률 도표

다음으로, 부부친밀감을 조건으로 한 결혼가치관 잠재계층 조건부확률을 살펴보면, '저수준 유지 집단'일 경우 결혼가치관 잠재계층에 대해 '보수적 가치관 고착형'은 3.3%, '중도-개방 변화형'은 32.7%, '개방적 가치관 유지형'은 64%의 확률로 속하였다. '보편-유지 집단'일 경우는 '보수적 가치관 고착형'에 5.9%, '중도-개방 변화형'에 44.6%, '개방적 가치관 유지형'에 49.5%의 확률을 보였다. '고수준 하향 집단'에 대해서는 '보수적 가치관 고착형'에 8%, '중도-개방 변화형'에 55.4%, '개방적 가치관 유지형'에 36.6%의 확률 크기를 보였다. 정리하자면, 결혼가치관 잠재계층 중 '보수적 가치관 고착형'에 속할 조건부확률은 공통적으로 모두 낮았다. 한편 부부친밀감이 '저수준 유지 집단'이거나 '보편-유지 집단'일 경우에는 '중도-개방 변화형' 보다는 '개방적 가치관 유지형'에 속하였다. 이와 달리 부부친밀감이 '고수준 하향 집단'일 때는 '중도-개방 변화형' 보다는 '개방적 가치관 유지형'의 조건부확률이 낮았다.

마지막으로 결혼가치관과 부부친밀감 잠재계층의 결합확률을 살펴보면, 결혼가치관이 '보수적 가치관 고착형'이면서 부부친밀감이 '저수준 유지 집단'일 확률은 0.4%로 결합확률 중 가장 낮았다. 결합확률이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경우는 '개방적 가치관 유지형'이면서 '보편-유지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 3. 결혼가치관 및 부부친밀감에 대한 영향요인 검증

기혼여성의 결혼가치관과 그들이 인식하는 부부친밀감의 변화양상에 따라 잠재계층을 분류하는 데에 개인 요인과 가정 요인이 가지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도출된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이는 두 변인에 대한 잠재계층을 서로의 잠재계층에 대해 통제된 상태에서의 결과다. 본 연구에서는 ‘중도-개방 변화형’과 ‘보편-유지 집단’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일반적이라고 판단하여, 두 집단을 각각 결혼가치관과 부부친밀감에 대한 준거집단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과를 해석하였다.

요인별로 어떤 변수가 잠재계층분류에 유의한지 살펴보면, 개인 요인 중 연령의 경우, 결혼가치관 잠재계층에서는 ‘개방적 가치관 유지형’에 한정하여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부친밀감 잠재계층에서는 모든 집단에 유의하였다. 직장유무는 결혼가치관의 ‘보수적 가치관 고착형’ 분류에 대해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와 달리 최종학력은 결혼가치관과 부부친밀감 모두에 유의하였다. 한편 가정 요인의 경우, 자녀유무와 가구소득은 결혼가치관 집단분류에는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지만 부부친밀감의 집단을 분류함에 있어서는 매우 유의하였다. 가사분담 만족도와 결혼생활 행복감은 두 모형 모두에 유의한 집단분류효과를 보였다. 결혼 연차의 경우, 결혼만족도의 ‘개방적 가치관 유지형’과 부부친밀감의 ‘저수준 유지 집단’에 대해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요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두 잠재계층성장모형을 각각 검토해보면, 결혼가치관 잠재계층에서는 자녀유무와 가구소득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결혼가치관 집단분류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개인 요인에서 연령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개방적 가치관 유지형’보다는 ‘중도-개방 변화형’에 속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직장유무에 대해서는 직장이 없는 기혼여성이 직장인 기혼여성에 비해 ‘보수적 가치관 고착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최종학력은 학력이 높을수록 ‘중도-개방 변화형’에 비해 ‘보수적 가치관 고착형’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고 ‘개방적 가치관 유지형’에 속할 확률이 증가했다. 한편 가정 요인에서는 가사분담 만족도, 결혼 연차와 결혼생활 행복감이 유의하였다. 가사분담 만족도와 결혼생활 행복감이 높아질수록 ‘중도-개방 변화형’에 비해 ‘보수적 가치관 고착형’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고 ‘개방적 가치관 유지형’에 속할 확률이 감소했다. 결혼 연차는 연차가 쌓일수록 ‘개방적 가치관 유지형’보다는 ‘중도-개방 변화형’에 속하였다.

〈표 5〉 결혼가치관 및 부부친밀감 잠재계층 분류에 대한 영향요인

(가) 결혼가치관 잠재계층의 영향요인					
준거: 중도-개방 변화형					
요인	변수	보수적 가치관 고착형		개방적 가치관 유지형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개인	연령	0.029	0.029	-0.051**	0.016
	직장유무	-0.744***	0.188	-0.113	0.104
	최종학력	-0.189***	0.031	0.100***	0.021
가정	자녀유무	0.569	0.561	0.388	0.309
	가사분담 만족도	0.502***	0.103	-0.136**	0.051
	결혼 연차	0.025	0.025	-0.075***	0.014
	가구소득	0.032	0.064	0.033	0.036
	결혼생활 행복감	0.396***	0.088	-0.515***	0.052
(나) 부부친밀감 잠재계층 영향요인					
준거: 보편-유지 집단					
요인	변수	저수준 유지 집단		고수준 하향 집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개인	연령	0.057**	0.019	-0.054*	0.022
	직장유무	0.218	0.132	0.029	0.130
	최종학력	-0.050*	0.025	0.155***	0.028
가정	자녀유무	-1.369*	0.647	0.662*	0.302
	가사분담 만족도	-0.503***	0.067	0.530***	0.069
	결혼 연차	-0.039*	0.016	0.037	0.020
	가구소득	-0.929***	0.067	1.185***	0.082
	결혼생활 행복감	-0.340***	0.084	0.239***	0.052

\*p&lt;0.05, \*\*p&lt;0.01, \*\*\*p&lt;0.001

부부친밀감 잠재계층에서는 직장유무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집단분류에 유의하였다. 개인 요인을 살펴보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편-유지 집단’에 비해 ‘저수준 유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고 ‘고수준 하향 집단’에 속할 확률은 낮아졌다. 최종학력은 결혼가치관에서 미친 영향력과 유사했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저수준 유지 집단’보다는 ‘보편-유지 집단’에, ‘보편-유지 집단’보다는 ‘고수준 하향 집단’에 속할 확률이 증가했다. 가정 요인의 경우,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이 ‘저수준 유지 집단’, ‘보편-유지 집단’, ‘고수준 하향 집단’ 순으로 해당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다.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가사분담 만

족도와 결혼생활 행복감이 높을수록 ‘저수준 유지 집단’보다는 ‘보편-유지 집단’에, ‘보편-유지 집단’보다는 ‘고수준 하향 집단’에 속할 확률이 증가했다. 결혼 연차는 ‘저수준 유지 집단’을 분류하는 데에만 유의하였으며, 연차가 쌓일수록 ‘보편-유지 집단’보다는 ‘저수준 유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낮아졌다. 가구소득은 소득이 높을수록 ‘저수준 유지 집단’보다는 ‘보편-유지 집단’에, ‘보편-유지 집단’보다는 ‘고수준 하향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결혼가치관 및 부부친밀감의 변화 양상에 대한 종단적인 연구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 이중 변화형태 모형을 적용하여 두 변수의 변화 양상이 어떠한지, 실제로 결혼가치관과 부부친밀감의 상호관계가 존재하는지, 또한 영향요인의 관련성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기혼여성의 결혼가치관과 부부친밀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수준으로 변화가 나타나 단일 집단으로 정의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결혼가치관은 ‘보수적 가치관 고착형’, ‘중도-개방 변화형’, ‘개방적 가치관 유지형’의 3개 집단, 부부친밀감은 ‘저수준 유지 집단’, ‘보편-유지 집단’, ‘고수준 하향 집단’의 3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결혼가치관에서 ‘중도-개방 변화형’ 집단이 45.0%, ‘개방적 가치관 유지형’ 집단이 49%로, 과거에 비해 가치관이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보수적 가치관을 고수하는 집단(6.0%)도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부부친밀감에 있어서는 72.0%의 기혼여성이 ‘보편-유지 집단’에 속하였다. 부부친밀감이 고수준이었다가 하향하는 집단(16.8%)도 있었으나, 저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집단도 11.2%를 차지하였다. 이는 ‘보편-유지 집단’ 및 ‘저수준 유지 집단’이 전체의 80%가 넘어 부부친밀감에 대한 인식이 유지되는 가정이 많음을 확인하였다.

둘째로, 기혼여성의 결혼가치관과 부부친밀감의 두 잠재계층성장모형에 대한 조건부확률 및 결합확률을 통해 변수 간 영향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결혼가치관을 조건으로 한 부부친밀감 잠재계층의 조건부 확률에서 주목할 점은, 결혼가치관이 어떤 유형이든 상관없이 기혼여성은 70% 이상의 비율로 부부친밀감의 ‘보편-유지 집단’에 가장 많이 속했으며, 결혼가치관이 개방적

(12.6%)일 때보다 보수적(22.5%)일 때 ‘고수준 하향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는 점이다. 이는 대부분의 기혼여성이 부부친밀감을 유지하나, 결혼가치관이 보수적인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친밀감의 수준이 다소 하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부부친밀감을 조건으로 한 결혼가치관 잠재계층을 살펴보면, 기혼여성의 대다수가 부부친밀감에 관계없이 ‘중도-개방 변화형’, ‘개방적 가치관 유지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현재 기혼여성의 결혼가치관이 점차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결합확률에서는 결혼가치관의 ‘개방적 가치관 유지형’과 부부친밀감의 ‘보편-유지 집단’에 동시에 속하는 기혼여성이 35.8%로 다른 결합에 비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중도-개방 변화형’과 ‘보편-유지 집단’이 32.1%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여성의 결혼가치관이 개방적으로 변화하거나 이미 개방적인 경우가 많으며, 부부친밀감의 수준은 비교적 잘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혼가치관의 ‘중도-개방 변화형’과 부부친밀감의 ‘고수준 하향 집단’에 함께 속하는 확률이 9.3%를 차지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는 결혼가치관의 개방적 변화와 부부친밀감의 하향이 서로 관련되며, 이를 통해 결혼가치관과 부부친밀감의 변화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로, 결혼가치관 및 부부친밀감 잠재계층에 대한 영향요인을 검증하였다. 결혼가치관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중도-개방 변화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중장년층보다 청년층에서 개방적인 결혼가치관을 가진다는 선행연구(은기수·이윤석, 2005)를 실질적으로 입증한 것과 더불어 중장년층의 결혼가치관도 근래에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직장여성은 ‘중도-개방 변화형’보다 ‘보수적 가치관 고착형’에 속할 확률이 낮았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가치관이 개방적일 확률이 높았다. 이는 여성의 고학력과 사회 진출증가가 개방적 결혼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영향요인 중 가사분담 만족도는 만족도 수준이 낮을수록 결혼가치관이 개방적이었다. 이는 사회가 급변하였음에도 여전히 가사 일에 대한 부담이 여성에게 더 크다는 기존의 선행연구(김진욱·박은영, 2018; 박중서, 2013) 결과를 바탕으로, 가사분담이 부담하다고 느끼는 것을 통해 가치관이 변화할 수 있어 나타난 결과라 볼 수 있다. 결혼생활 행복감의 경우, 행복감이 높을수록 결혼가치관이 보수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승배·이정환(2015)의 연구를 고려하면, 결혼생활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 그 생활을 고수하고자 하는 태도가 보수적 가치관 형성과 연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부부친밀감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고수준 하향 집단’보다는 ‘보편-유지 집단’에, ‘보편-유지 집단’보다는 ‘저수준 유지 집단’에 속할 확률이 증가했다. 즉, 젊은 여성일수록 부부친밀감이 높았다가 하향하는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정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자녀유무는 결혼가치관보다 부부친밀감에 유의했으며, 자녀가 있을 경우, ‘고수준 하향 집단’에 속할 확률이 커져 부부친밀감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에 대한 양육스트레스가 부부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안정신·문혜련, 2017)를 지지하는 결과다. 또한, 가사분담 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부친밀감의 ‘고수준 하향 집단’에 속할 확률이 낮았다. 이는 공평한 가사분담이 서로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부부친밀감 또한 높일 수 있으나,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의 심리적 거리를 멀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가사분담 만족도만으로는 절대적으로 가사일이 공평하게 분담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이에 관한 추후연구가 요구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한 본 연구의 논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여성의 결혼가치관과 부부친밀감의 변화를 확인하여 현재 한국에서 나타나는 인구사회학적·가정학적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도왔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실제로 과거에 비해 결혼가치관이 개방적인 기혼여성이 많아지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가 여성을 대상으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기혼남성의 결혼가치관 변화나 부부친밀감을 함께 살펴보지 못한 제약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저출생의 원인으로 주목받는 요소들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저출생 현상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자녀유무는 결혼가치관과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저출생 문제는 결혼가치관 변화보다 다른 사회적 요인에 의해 더 크게 영향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궁극적으로 결혼과 출산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권정혜·채규만(2000). “부부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제19권 제2호, 207-218.
- 김경화·이선미(1998).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나타난 결혼 이데올로기”. *한국가정과학회지*, 제1권 제1호, 27-43.
- 김명희·최연실(2007). “중년기 기혼남녀의 부부의사소통과 부부친밀감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5권 제3호, 1-23.
- 김미옥·김경숙(2016). “부부친밀감, 자기효능감, 심리적 위기감이 중년남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제11권 제1호, 165-174.
- 김수진·김세영(2013). “중년여성의 부부친밀감, 우울과 갱년기 증상의 관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9권 제3호, 176-187.
- 김승권(2014). “한국인의 가족가치관과 사회정책 방향”. *보건·복지 Issue& ocus*, 제246권, 1-8.
- 김은경(2014). “부부관계특성이 둘째 자녀 출산 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8권 제4호, 199-217.
- 김종훈(2018). “인구정책 및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망”. *보건복지포럼*, 제255권, 61-74.
- 김지유·조희선(2014). “대학생의 이성 관련태도 및 결혼가치관과 결혼이미지가 결혼기대연령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9권 제2호, 123-143.
- 김진옥·박은영(2018). “미취학자녀를 둔 기혼 남성의 일-가정 균형이 자녀관계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1호, 211-236.
- 김태길(1995). *한국윤리의 재정립*. 서울: 철학과현실사.
- 김태현(2005). “가치관 변화와 저출산”. *보건복지포럼*, 제102권, 16-24.
- 남춘호·남궁명희(2012). “생애과정의 탈표준화 경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 성인기 이행의 구조변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제20권 제2호, 91-128.
- 문선희(2012). “미혼여성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결혼의향과 기대결혼연령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17권 제3호, 5-25.
- 박종서(2013). “가족 내 가사분담과 성역할 인식에서 나타나는 양성평등 실태”. *보건복지포럼*, 제199권, 28-38.
- 신승배·이정환(2015). “동아시아의 가족가치관과 행복감 비교: 한국, 중국, 일본 비교”. *사회과학연구*, 제39권 제3호, 279-310.

- 안정신·문혜련(2017). “어머니가 인식한 부부관계가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24권 제1호, 71-89.
- 윤미혜·신희천(2009). “일상사건의 공유를 통한 부부의 친밀감 발달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3권 제1호, 17-32.
- 은기수·이윤석(2005). “한국의 가족가치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인구학*, 제28권 제1호, 107-132.
- 이경희(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 유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경희·옥선화(1998). “1998 년도 제 51 차 춘계학술대회 (주제: 국가경제위기와 가정의 대처 전략) 분야별 발표논문 초록-가족, 아동, 소비자, 식생활: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유형”.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제36권 제4호, 247-248.
- 이미옥·명성준(2015).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9권 제1호, 331-351.
- 이삼식(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제26권 제2호, 95-140.
- \_\_\_\_\_(2015). “인구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제219권, 36-49.
- 이연숙·김하늬·이정우(2016). “남녀 대학생의 가족가치관 유형에 따른 자녀출산에 대한 인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20권 제1호, 109-140.
- 이충환·신준섭(2013).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현황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지방행정연구*, 제27권 제1호, 97-124.
- 진미정·정혜은(2010).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대한 가족 가치관의 영향 추세 연구: 2005년,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33권 제3호, 31-51.
- 최연실(1995). 청소년자녀기 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효식(2017). “다문화 가정의 부부 대화시간, 가구 월평균 소득이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부갈등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7권, 237-255.
- 통계청(2018a). 2017년 출생통계(확정). 대전: 통계청 인구동향과
- \_\_\_\_\_(2018b). 2017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보도자료(최종). 대전: 통계청 행정통계과
- 하오령·권정혜(2006). “기혼 직장여성의 정신 건강과 역할 만족도: 역할 갈등, 완

- 벽주의 및 가족지지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5권 제3호, 675-696.
- 허윤정(1997). 부부관계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의사소통과 갈등해결방식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호정화(2014). “비혼과 1인 가구 시대의 청년층 결혼 가치관 연구: 혼인 및 거주형태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37권 제4호, 25-59.
- 머니투데이(2018). “OECD 출산율 꼴지는 한국 … 유일한 ‘초저출산국가’”.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oecd-%EC%B6%9C%EC%82%B0%EC%9C%A8-%EA%BC%B4%EC%B0%8C%EB%8A%94-%ED%95%9C%EA%B5%AD%E2%80%A6%EC%9C%A0%EC%9D%BC%ED%95%9C-%EC%B4%88%EC%A0%80%EC%B6%9C%EC%82%B0%EA%B5%AD%EA%B0%80/ar-BBMgHS9>에서 2018.08.22. 인출.
- 서울경제(2018). “혼인률 사상 최저… 실업·집값에 비혼시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250885>에서 2018.03.22. 인출.
- 이데일리(2018). “다자녀 기준 3명→2명 왜?…한집당 1명도 안 낳는 ‘무자녀시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183460>에서 2018.08.28. 인출.
- Akaike, H.(1974). A New look at the statistical model identification. *IEEE Transactions on Automatic Control*, 19, 716-723.
- Andruff, H., Carraro, N., Thompson, A., & Gaudreau, P.(2009). Latent class growth modelling: A tutorial. *Tutorials in Quantitative Methods for Psychology*, 5(1), 11-24.
- Cherlin, A. J.(2004).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America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4), 848-861.
- Dent, H. S.(2014). *The demographic cliff: How to survive and prosper during the great deflation of 2014-2019*. US: Penguin.
- Jones, B. L., & Nagin, D. S.(2007). Advances in group-based trajectory modeling and an SAS procedure for estimating them.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35(4), 542-571.
- Jung, T., & Wickrama, K. A. S.(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Compass*, 2, 302-307.

- Nagin, D. S.(1999). Analyz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Semi parametric, group-based approach. *Psychological Methods*, 4, 139-177.
- Nagin, D. S., & Tremblay, R. E.(2001). Analyz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distinct but related behaviors: A group-based method. *Psychological Methods*, 6, 18-34.
- Nagin, D. S.(2005). *Group-based modeling of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Ryder, R. G.(1973). Longitudinal data relating marriage satisfaction and having a chil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5(4), 604-606.
- Schwartz, G.(1978). Estimating dimensions of a model. *Annals of Statistics*, 6, 461-464.

Abstract

## Married Women's Types of Longitudinal Change in Marriage Values and Marital Intimacy and Related Determinants : Application of Dual Trajectory Modeling Approach

Ye Ji Nam\*·Yoo Na Jang\*\*·Se Hee Hong\*\*\*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stimat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married women's marriage values and marital intimacy applying dual trajectory modeling approach, and to identify determinants of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KLoWF) was used, given its large sample size and generalizability. Results showed that three latent classes for marriage value were identified; 'fixed conservatism', 'open minded-centrist', and 'consistent openness.' Similarly, three latent classes appeared for marital intimacy; 'consistent low-level', 'consistent universality', and 'downtrend high-level'. Age, academic ability, satisfaction of housework division, years and happiness in marriage were found to be critical determinants for both latent classes. Job status was solely influent to marriage values and the number of children was to marital intimacy, respectively. This study can be helpful to comprehend the present structure of Korean families and population, combining longitudinally married women's marriage values with their marital intimacy. Additionally, this study had methodological significance, in that it found latent classes based on the longitudinal trajectories and their determinants, and further sugges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latent models extending conventional latent class growth model.

**Keywords :** married women, marriage values, marital intimacy, latent class growth model, dual trajectory model

---

\* First Author : Master Student, Dep.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 Second Author : Ph. D. Student, Dep.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 Professor, Dep.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